고전문학에 나타난 재담의 양상

최진형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언어유희의 사회적 기능

언어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 기능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적 기능'이란 당대 사회상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나아가 상호 소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적극적인 실현태로서의 측면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나무
읽다가 지치는 책은? 지침서

위에 제시한 것은 문답을 통해 경쟁을 하는 말장난 또는 언어 게임의 하나로 수수께끼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언어유희를 '아재개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다지 신선한 내용이 아니어서 듣는 사람에게 더 이상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이 못 되기 때문에 유행에 뒤처진다는 의미로 이같이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사례는 얕잡아 볼 만큼 저급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단순한 언어유희에 머물지 않고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재치 있게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 작품에는 이처럼 '재치' 있게 쓰인 표현이 많다. '재치'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재담(才談)'이라고 한다. '아재개그'도 일종의 재담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담이 추구하는 재치와 재미는 일상적인 언어 관습을 파괴하는 데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 언어 소통 체계에 존재하는 사소한 간극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이를 흔들거나 뒤집기도 하고, 당연시되던 관습과 사고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바로 '언어유희(言語遊戱)'이다. 흔히 언어유희(또는 어희語戱)라고 하면 가벼운 '말장난'을 떠올리지만, 단순한 말장난에 그치지 않고 관습적·보수적 사고나 가치관을 뒤흔들 정도의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 나타난 재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재미나 흥미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유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든지, 발칙하면서도 자유로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경우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2. 재담이 유발하는 반성적 사유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
—구전 민요[1]

이 작품은 동학혁명 당시 불렸던 노래로서, 갑오년(甲午年, 1894)에 일어난 혁명이 내세웠던 명분과 목적, 즉 '부패 척결—내정 개혁—외세 배격'

1) 임동권, ≪한국민요집≫, 동국문화사, 1966, 595쪽.

등을 단행하는 데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 해인 '을미년(乙未年)'까지 미적거리다가는 '병신년(丙申年)'이 되었을 때 결국 혁명이 실패하고 나라가 병신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구전 민요이다.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는 노래인 참요(讖謠)의 면모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시어가 간지(干支)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놓여 있으며, 역사적 배경으로서 동학혁명 및 갑오개혁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파하여야 한다. 작품의 핵심 시어는 '가보세'이다. '을미(乙未)'와 '병신(丙申)'을 '을미적거리다'나 '병신되다'와 연관 지은 발상도 재치 있지만, 갑오세(甲午歲)를 '가보세'라는 청유형 어미로 바꾼 부분은 매우 탁월하다. 타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현실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뜻을 모아 함께 하기를 청자에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 이 작품을 간지와 음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를 활용한 말장난 수준의 재담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함축된 사유와 표현의 수준과 깊이는 결코 단순하거나 저급하지 않다. 참혹할 정도로 암울했던 질곡의 근대사에서 한줄기 빛처럼 중요한 변곡점(變曲點)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갑오년(甲午年)이기 때문이고, 우리 민족의 슬픈 운명을 내다본 듯 날카롭고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어느 역사가의 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세계관과 실천적 문학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한다.

이처럼 재담이 유발하는 효과와 파괴력은 때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기도 한다. 재담은 우리의 기대지평(期待地平)을 뒤흔들거나 무너뜨림으로써 신선한 자극, 즉 미적 쾌감을 얻게 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특한 문학적 효용 가치를 획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안이리] *놀보 화를 내어 "이 밥 아니 먹었으면 고만이지오" 하며 발로 밥상을 탁 차니 상발은 부러지고 종자는 둥글고 접시는 폭삭, 사발은 떡깍, 수저는 쨍그렁, 국물은 쏟아져 장판방 네 구석에 좌르르 흐르니 흥보 처 이른 말이 "아주버님 들으시오. 사람을 치지 밥상도 치십니까? (중략) 밥이 어떻게 중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셨노? 밥이라는 것이 나라에 올리면 수라요, 양반이 자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제 배가 먹으면 밥이오. 제사에는 진메이니 얼마나 중한가요? 동리가 알고 보면 손도가 싸고 관가에서 알면 볼기가 싸고, 감영에서 알면 귀양이 싸오"*
—심정순 창본, <박타령>[2]

위의 예문은 판소리 <흥보가(박타령)>에서 부자가 된 동생 집을 찾아온 놀보가 심술을 부리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놀보의 행패를 대하는 흥보 아내의 발화가 주목된다. 더 이상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걷어 찬 시아주버니에게 쏟아 내는 흥보 아내의 목소리는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밥에 대한 예의,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에 관한 준엄한 꾸짖음일 것이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족에게 줄 밥 한 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가장(家長) 흥보에 대한 마음,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설움을 견디다 못해 목을 매려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이 사무쳤기 때문일 터다. '수라-진지-입시(하인이 먹는 밥을 낮잡아 이르는 말)-젯메(제사 때 올리는 밥)' 등 밥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양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밥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밥을 함부로 한 대가로 '손도(損徒: 지역에서 내쫓음)-볼기-귀양' 등의 형벌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밥의 종류와 벌의 종류를 나열하며 대비

2) 김진영 외 편저, ≪흥부전 전집 1≫ , 박이정, 1997, 108쪽.

하는 재치 있는 방식은 단순한 언어유희와는 차별화되는 방식의 재담이다. 홍보 처의 입장에서 볼 때 시아주버니의 행패에 정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을 터이므로 재담을 활용하여 재치 있게 응대한 것은 여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재담에 나타난 비판과 풍자

[말로] *글을 읽는데 맑은 정신은 춘향집으로 벌써 봇짐 싸고 등신만 앉아 글을 읽는데, 노루뛰엄으로 읽어 가다 춘향 말을 떡시루에 고물 적지 두듯 하것다. "맹자라. 맹자견양혜왕 하신대 왕왈 수불원천리이래 하시니 ㉠맹자 어찌 양혜왕을 보았으리오. 우리 춘향이가 나를 보았지. 대학을 들여라. 대학지도는 재명명덕하며, 재신민하며, 재지어지선이라. ㉡재춘향이라." 사략을 들여 놓고, "태고라. 천황씨는 이쑥떡으로 왕하여 세기섭제하여 무위이화하여 십이인이 각 일만팔천세하다." 방자 옆에 섰다. ㉢"여보 도련님 천황씨가 목덕으로 왕하셨단 말은 들었으되 쑥떡이란 말씀은 금시초문이오." ㉣"네 모르는 말이로다. 천황씨는 일만팔천세를 살으실 양반이라 이가 단단하여 목떡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목떡 먹겠느냐. 물씬물씬한 쑥떡 먹기로 공자님이 명륜당에 현몽하고 각읍 향교로 싹 잡아 돌렸느니라." "여보 하느님 알으시면 깜짝 놀랠 거짓말 말으시오." "등왕각서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로다. 옳다 이 글 내 글이다. 춘향은 신부되고 나는 신랑되어 오늘 저녁에 만나보자."*

—장자백 창본, <춘향가>[3]

3) 김진영 외 역주, ≪명창 장자백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55쪽.

판소리 <춘향가>의 '글자타령(혹은 천자풀이)'과 '사랑가' 대목은 매우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목은 특히 한자를 활용한 재담이 다양한 기법에 의해 펼쳐지면서 흥미를 돋운다. 판소리에 나오는 재담의 상당수가 비속한 표현, 육담(肉談)적 요소를 양념처럼 넣어 자극적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춘향가>에는 문자성(文字性)에 기반을 둔 재담이 많은 편이다. '천자풀이'나 '사랑가' 등은 한자 문화권의 일반적 교양 담론에 익숙하다면 매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재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예문만 보더라도 ≪맹자(孟子)≫, ≪대학(大學)≫, ≪사략(史略)≫, <등왕각서(滕王閣序)>의 유명 구절을 재치 있게 차용하여 변용함으로써 기발한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작품의 독자가 양반층이라면 이 대목을 접하고 당연히 낄낄거리며 웃을 수 있겠지만,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 서민층도 이 대목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굳이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아니더라도, ≪맹자≫나 ≪대학≫의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여 일종의 교양 담론이 되어 누구나 구사할 정도의 일상화된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나 ㉡이 재치 있는 언어유희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략≫이다. '이목덕위왕(以木德爲王)'에서 '목덕(木德)'은 오행 및 주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가 담긴 개념이다. 그런데 판소리 광대는 이 구절을 '목떡', 즉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에 착안하여 먹는 떡으로 치환한 후, 다시 부드러운 '쑥떡'으로 바꿔치기하는 기발하고 해학적인 재담을 창안하였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 ㉣의 목소리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 목소리의 주인공인 방자는 '목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도령은 '목덕'의 의미는 확실히 모른 채 소리만으로 암기하여 떡으로 알고 있었고, 금시초문이라는 말을 듣자 궤변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노의 신분이지만 경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방자는,

양반이라는 기득권으로 엉터리 주장을 밀어붙이는 이도령의 위세 앞에서도 '하늘이 알면 깜짝 놀랄 거짓말 말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처럼 재담을 통해 방자와 이도령, 또는 천민과 양반의 역할이 전도(轉倒)되어 나타나고, 여기서 비판과 견제의 효과가 달성된다. 지적 허세와 허위로 백성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지배층에 대한 해학적인 풍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육담에 나타난 발칙하고 자유로운 상상력

[중중머리] *"높고 높은 하늘 천, 깊고 깊은 따 지, ㉠휘휘칭칭 감을 현, 꾹 눌렀다 누루 황"*

[말로] *"에 이 놈 상놈이다. 높으면 하늘이요 깊으면 땅이란 말이냐. 천자론이 따로 있느니라.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중머리] *천개자시생천 하니 태극이 광대 하늘 천, 지벽축시생후 하니 오행팔괘로 따 지, 삽심삼천공부공 하니 인심이 지시 검을 현, 이십팔수 금목수화토지정색 누를 황; 일월이 생하여 천지가 명하니 만물을 위하여 집 우, 토지가 두터워 초목이 생하니 살기를 취하여 집 주, 인유이주하여 천지가 광하니 십이제국이 넓을 홍, 삼황오제 붕하신 후에 난신적자 거칠 황, (중략) 하도낙서 벌인 법, 일월성신 별 진, ㉡무월동방 원앙금에 춘향 동침 잘 숙, ㉢둥뚱떵 입맞추며 사양말라 벌릴 열, 일야 동침에 백년을 기약, 온갖 정담 베풀 장, 금일한풍이 소소한데 금침에 들리라 찰 한, 벼개가 높거든 내 팔을 배어라 이만큼 오너라 올 래, 에후리쳐 안고 침각에 드니 설한풍에도 더울서, 침실이 온하면 서로를 피할까 이리저리 갈 왕 (중략) 소한 대한을 염려마소 우리 님 의복 감출 장, 이 해가 어이 이리 긴고 수시로 좇아 부를 윤, 춘향집을 어느 때 갈까 이제도 사오시 남을 여, 외로이 정담을 이루지 못하니 춘향 만난*

이룰 성, 나는 일각이 여삼추라 일년사시를 빌게 되니 송구영신 해 세, 조강지처는 오륜의 반이라 대전통편의 법중 률, 군자호구가 이 아니냐 ㉣춘향과 나와 혀 마주 물고 아드득 쪽쪽 빨거들면 법중 려자 이 아니냐, 보고지고"

－장자백 창본, <춘향가>[4]

이 예문은 앞서 다룬 '글자타령'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흔히 '천자풀이'라고 불린다. 천자풀이는 ≪천자문(千字文)≫에 대한 일종의 창의적 재해석 또는 의도적 오독(誤讀)에 의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검다[玄]'란 발음이 '감다'와 유사함에 착안하여 '휘휘칭칭 감았다'로, '누렇다[黃]'란 발음이 '누르다[壓]'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해 '꾹 눌렀다'로 치환한 ㉠은 매우 창의적이다. 이 부분의 화자가 천민인 방자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기발하고 참신하다고 느껴진다. 물론 왼쪽에 제시한 자료 사진에 드러나 있듯, '가믈 현'이나 '누를 황' 등 당시 ≪천자문≫의 한글 음훈 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고나 가치관에 안주하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비틀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천자문≫ (서울대 도서관 소장)

한편 양반인 이도령에 의해 전개되는 뒷부분, 특히 잘 '숙(宿)'에서 법칙 '려(呂)'에 이르는 대목은 ㉠과는 격이

4) 김진영 외 역주, ≪명창 장자백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55-59쪽.

완전히 다른 높은 수준의 패러디 기법을 보여 준다. '진숙열장(辰宿列張)'이라는 ≪천자문≫의 해당 구절의 밑바탕에는 우리 주변의 자연을 넘어 우주를 아우르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차원의 철학적 사유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춘향가>에 활용될 때에는 ㉡과 같이 춘향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본래의 세계관은 사라지고 남녀 간의 애정을 묘사하는 도구로 치환되어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배열을 의미하는 '열(列)'을 '벌리다'로 보는 해석(㉢)을 접하면 이 재담이 육담(肉談)으로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각성은 곧 ㉣과 같은 노골적 풀이를 접하였을 때에도 거부감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미소를 머금은 채 감탄사를 발하게 만든다. '려(呂)' 자를 입 '구(口)' 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즉 이도령과 춘향의 입맞춤을 형상화한 것으로 만드는 이 독특하며 발칙한 상상력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천자문≫을 비롯, ≪맹자≫, ≪사략≫ 등이 차례로 언어유희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은 자칫 유학(儒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매우 천박하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도 있다. 틀에 박힌 사고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유의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유희가 육담(肉談)과 연결되는 순간 우려와 경계의 시각은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오히려 재치와 기발함에 의해 자극된 우리의 상상력과 이로 인한 쾌감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머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대다수 재담에서 희화화(戱畫化)와 패러디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육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설화(舌禍) 또는 필화(筆禍)를 의식해야 했던 현실적 상황이 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중중머리] *"궁자 노래를 들어라. (중략) 월궁 속에는 광한궁, 용궁 속에는 수정궁, 이 산은 이 궁이요, 저리 올라 법궁이요. 이 궁*

저 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할 제, 양각 사이 ㉤오목궁,
내 ㉥가죽방망이로 궁궁궁 올려놓으면 그 아니 별궁이랴."
－장자백 창본, <춘향가>[5]

이 예문은 <춘향가>의 '사랑가' 중 '궁자노래'라고 불리는 대목이다. '사랑가'는 <춘향가>의 대표적인 대목일 뿐 아니라 판소리를 대표하는 대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하고 완성도도 높다. 사랑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지만 대개 '긴사랑가-情자노래, 宮자노래-만첩청산-금옥사설-업고놀기, 타고놀기' 등의 짜임을 보인다. 이 중 '궁(宮)자노래'는 역대 궁궐 이름을 나열하다가 점점 자극적 표현의 수위를 높여 마침내 성행위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노래이다. 다섯 군데 밑줄 친 단어, '합궁', '오목궁', '가죽방망이', '궁궁궁', '별궁'은 한자어와 고유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언어유희적 재담을 보여 준다. 이 표현을 접한 관객은 직관적으로 남녀 관계를 상상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 ㉥이다. ㉤'오목궁'은 여근(女根), ㉥'가죽방망이'는 남근(男根)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상력과 상징은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적 관습의 누적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 두 편의 시조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玉이 玉이라커늘 燔玉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眞玉일시 적실하다
내게 ㉠살송곳 있더니 뚫어볼가 하노라
－≪槿樂≫ 391, 蔓橫淸, 鄭松江[6]

5) 김진영 외 역주, ≪명창 장자백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85-87쪽.
6) 심재완 편저,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755쪽.

鐵이 鐵이라커늘 섭鐵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正鐵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풀무 있더니 녹여볼까 하노라
－≪槿樂≫ 392, 蔓橫淸, 鄭松江[7]

㉠'살송곳'은 남근, ◎'골풀무'는 여근을 상징한다.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근화악부(槿花樂府)≫에는 '송강 정철과 기생 진옥이 서로 주고받은 작품(鄭松江與女妓眞玉相酬答)'이라는 부기를 통해 이 텍스트가 연행의 현장에서 실현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상대방의 이름을 활용하되, '번옥(인공산옥):진옥(자연산 옥)', '섭철(불순물 섞인 쇠):정철(순수한 쇠)'로 짝을 지어 '진가(眞假)'를 대비한 후, 이를 다시 상대방의 이름으로 치환한 기지와 재치도 놀랍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송곳'과 '골풀무'라는 육담적 상상력과 연계한 발상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옥(玉)을 세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송곳과 철을 제련하는 도구로서의 풀무를 떠올리되, '살[肉]' 자를 붙여 남근을 상징하고, 골풀무[冶爐]에서 '골'이 환기하는 형태적 유사성을 활용하여 '여근'을 표상한 해학적 상상력은 그야말로 '기재(奇才)'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담이 유통되고 향유되는 공간의 문화적 기반에는 발칙하고도 자유로운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다.

5. 맺으며

지난 학기 초 개강 무렵의 일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내용이 아주 이색적이었다.

---

7) 심재완 편저, 위의 책, 1031쪽.

대학생이 왜 강한지 알아? 개강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결국 설명을 듣고 나서야 웃을 수 있었다. 이 문구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라는 접사가 요즘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헛된', '쓸데없는', '정도가 심한'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개꿈, 개수작, 개죽음, 개잡놈' 등의 예에서처럼 부정적 의미를 더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만으로 그 쓰임새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요즘 어린 학생들은 '개-'라는 접두사를 부정적인 데에만 쓰지 않고, '개좋다', '개이뻐', '개맛있어' 등에도 쓰기 때문이다. '아주', '매우'란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개-'라는 접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현수막에 적힌 글의 뜻은 '개강(開講)할 무렵 대학생은 매우 강(强)하다'쯤 될 것이다.

본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개-'를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쓰는 현상으로 본다면, 국어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삼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헬조선'이란 말이 요즘 현실을 아프게 지적하듯 젊은이들에게 현재나 미래는 암담할 뿐 희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 버리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개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재치 있게 비꼬는 차원에서 '개-'라는 접사를 붙이는 것은 아닐까? 고전문학의 재담에서 발견되는 해학적 웃음과 예리한 풍자의 공존을 현대의 언어유희에서도 좀 더 많이 만나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